

윌리엄 페브르… 테루아를 담은 샤블리의 ‘골든’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내면에 있다. 사람이든 와인이든 마찬가지다. 와인마다 그렇게 테루아를 강조하는 이유다.

특히 프랑스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 샤블리가 그렇다. 포도밭을 그랑 크뤼 등급으로 지정하는 기준 자체가 토양이다. 불과 몇 발자국 차이로 크랑 크뤼와 프리미에 크뤼가 나뉘기도 한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골든’을 노래하며 내면의 빛나는 본질을 깨닫듯이 샤블리의 도멘 윌리엄 페브르에게 와인 양조는 테루아의 가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이다.

도멘 바롱 드 로칠드(DBR) 피에르-안투안 발랑 아시아 태평양 매니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윌리엄 페브르의 철학은 샤블리의 정통성과 탁월함, 순수성, 그리고 테루아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페브르는 작년 DBR 라피트 가문에 합류했다. 윌리엄 페브르 자체로는 300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와인을 맛보기에 앞서 먼저 샤블리가 어떤 곳인지 보자. 지리적으로는 부르고뉴에서 가장 북쪽이다. 와인 이름에 우리로는 발음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나 마을명이 많아 그렇지 사실 샤블



1도멘 바롱 드 로칠드(DBR) 피에르-안투안 발랑 아시아 태평양 매니저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윌리엄 페브르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왼쪽부터 샤블리 2022,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푸르썬 2020,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보로랑 2020, 샤블리 그랑 크뤼 레 프뢰즈 2020, 샤블리 그랑 크뤼 레 끌로 2022.



리 와인은 쉽다. 포도품종 단 하나, 샤도네이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 전부다.

다른 화이트 와인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샤블리의 매력은 순수한 미네랄감이다. 한 때 바다였던, 그래서 굴 등 해양 화석을 품은 토양 덕분이다. 무려 1억 5000만 년의 시간을 담은 테루아다.

윌리엄 페브르는 샤블리 와이너리 가운데 가장 많은 78ha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특히 7개 그랑 크뤼 포도밭(끌리마) 중 5곳에 포도밭이 있다.

피에르는 “샤블리 그랑 크뤼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자로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30~60년인 올드 바인 위주”라며 “소출량은 많지 않지만 그만큼 응축되고 복합적인 아로마를 지닌 와인을 만들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루아를 강조했으니 같은 그랑 크뤼, 같은 프리미에 크뤼라도 포도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집중해 본다.

레 끌로는 샤블리 그랑 크뤼의 상징과도 같은 포도밭이다. 면적도 가장 넓다. 가파른 경사와 석회질과 점토가 깊은 토양이 와인에 힘을 실어준다.

‘샤블리 그랑 크뤼 레 끌로 2022’는 맑은 황금빛에 자몽, 레몬 등 시트러스와 백도같은 핵과일, 흰 꽃과 오렌지 껍질, 부싯돌의 아로마가 복합적이다. 입안에서는 과실미는 응축됐고, 좋은 질감과 선명한 산도, 짭짤한 미네랄이 그랑 크뤼 와인의 전형이다.

피에르는 “샤블리 그랑 크뤼의 경우 2~3년 후부

터 시음 적기에 들어서지만 15년 인파이 최고 절정이 될 것”이라며 “너무 차갑게 마시기 보다는 적당한 온도로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레 프뢰즈는 그랑 크뤼 포도밭 가운데 가장 우아함을 가진 곳이다. ‘샤블리 그랑 크뤼 레 프뢰즈 2020’는 과실에 꽃향, 농축된 미네랄과 미묘한 부싯돌 아로마가 어우러진다. 입 안에서는 매끄러운 질감과 동글면서 존재감 있는 산도가 확실히 세련되고 우아하다.

테니스 선수로 비교하자면 라파엘 나달과 로저 페더러다. 샤블리 그랑 크뤼 레 끌로가 힘을 가진 나달, 샤블리 그랑 크뤼 레 프뢰즈가 정교하고 우아한 페더러다.

푸르썬은 프리미에 크뤼 포도밭이지만 그랑 크뤼인 레 프뢰즈와 바로 맞닿아 있다. 베이비 그랑 크뤼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은 애기다.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푸르썬 2020’은 과실미는 신선하면서 햇살을 충분히 받은만큼 풍성한 질감과 구조감이 인상적이다. 기본 샤블리급과 비교하면 미네랄감은 더 좋아졌고, 여운도 길다. 해산물이 나 굴과 잘 어울린다.

보로랑은 푸르썬 포도밭에 속해 있지만 좀 더 작은 구획인 단일 파셀이다. 레 프뢰즈와 붙어있고, 방향도 좀 더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거의 그랑 크뤼와 같은 조건이다.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보로랑 2020’은 풍부한 과실미와 뚜렷한 미네랄감, 우아한 질감과 집중력있는 모습이 확실히 그랑 크뤼에 한 발 다가간 모습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롯데시네마, 보이그룹 ‘엔팀’ 투어 콘서트 생중계

롯데시네마는 글로벌 보이그룹 ‘엔팀(&TEAM)’의 첫 아시아 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생중계한다.

지난 5월 일본 아이치를 시작으로 도쿄, 방콕, 후쿠오카, 서울, 자카르타, 타이베이, 호고, 홍콩에서 두 달여 간 아시아 투어를 하고 있는 엔팀은 이달 25~2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앙코르 공연을 한다.

롯데시네마는 ‘2025 엔팀 콘서트 투어 ‘어웨이 큰 더 블러드라인 앙코르 인 재팬’의 첫 공연을 25일 오후 6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건대입구, 부산 본점을 비롯한 전국 15곳에서 생중계한다. 현지 공

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국내 팬들에게도 극장에서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롯데시네마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생중계는 롯데시네마의 대표 음향 특화관 ‘광음시네마’에서도 진행돼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광음시네마의 초극저음 우퍼 사운드가 구현하는 입체 음향은 마치 공연장 한 가운데 있는 듯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또한 극장의 대형 스크린은 엔팀의 미세한 표정과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 몰입감을 배가시키며 관객들에게 극장 생중계만이 지닌 차별화된 즐거움을 전달한다.

소프라노 박유리, 韓 최초 오스트리아 무지크페라인서 무대

소프라노 박유리가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무지크페라인 골든홀에 섰다.

지난 6일 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 합창단은 소프라노 박유리와 함께 모차르트의 레퀴엠 공연을 가졌다.

비엔나를 세계 음악의 수도로 만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꾸며진 이날의 음악회 1부는 소프라노 박유리의 무대로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를 위한 콘체르토 아리아인 ‘Va do, ma dove’ K.583을 시작으로 바이올린과 소프라노의 이중창이 돋보이는 오페라 Il re pastore의

여주인공 아민타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한 아리아 ‘L’amero, sarò costante’를 연속으로 불러 큰 환호를 받았다.

음악회 2부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으로 남긴 진혼곡인 레퀴엠을 빈국립음대 합창단과 4명의 솔리스트가 골든홀에서 만드는 완벽한 음향으로 청중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세계에서 가장 음향이 뛰어난 극장으로 평가받는 골든홀에서의 소리의 깊이와 울림은 공연장을 가득채운 관객석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전달되어 연주자들의 생생한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스마트한 지배 속, 서사 있는 삶 찾아야

누군가 인스타그램 아이디어를 물어오면 참 난감하다. 계정이 없다고 답하면, 상대는 “나랑 친해지기 싫어서 안 알려주는구나”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는 마음을 문을 닫아버린다. 사실 이 SNS 앱은 들어갈 때마다 뭔가를 자꾸 사서 나오는 게 화가 나 지웠다. 사용자의 입맛을 완벽하게 간파한 알고리즘은 취향을 저격한 물건들을 줄줄이 피드에 띄웠고, 지갑은 스르륵 열렸다. 이런 일이 반복됐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

철학자 한병철이 쓴 ‘서사의 위기’를 읽다가 왜 SNS 앱을 없애고 속이 후련해졌는지 깨닫게 됐다. 우리가 자유 의지로 ‘내가 원해서 했다’고 믿었던 많은 행위들-일상 공유, 이웃과의 소통 등-은 사실 정보체제라는 신(新) 지배구조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과거 산업체제 아래에서는 규율과 감시, 명령을 통해 인간을 직접적으로 통제했다면, 오늘날의 지배는 교묘하고 매혹적이다. 첨단 기술을 등에 업은 ‘스마트한 지배’는 명령 대신 유혹을, 강압 대신 참여를 내세워 사람들을 스스로 종속시킨다.

저자는 “스마트한 지배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 필요, 선호를 소통하라고, 삶을 서술하라고, 게시하라고, 공유하라고, 링크로 걸라고 요구한다”며 “이때 자유는 억압되기는커녕 철저히 흡사된다. 자유는 결국 통제와 제어로 전복된



서사의 위기

한병철 지음/다산초당

다”고 말한다.

스마트한 지배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자유와 소통의 탈 속에 숨어 사람들이 게시하고, 공유하고, 링크를 거는 동안 스스로를 지배의 흐름에 예속시킨다.

저자는 “디지털화된 후기 근대의 인간은 끊임없이 게시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면서 별거벗은, 공허해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착한 다”며 “오늘날의 위기는 ‘사느냐, 이야기하느냐’가 아닌 ‘사느냐, 게시하느냐’가 된 데 있다”고 진단한다.

144쪽. 1만6800원.

/김현정 기자 hjk1@



▲한국시리즈 앞둔 LG, 22일 팬과 함께하는 자체 청백전·출정식 진행

▲‘10월 1승1패’ 홍명보호, FIFA 랭킹 상승…월드컵 포트2 청신호

/사진 뉴시스

▲숨 돌릴 틈 없다…손흥민 비롯 해외파, 소속팀 복귀 후 곧장 출격 대기

▲‘K리그1 선두’ 전북, 정규라운드 마지막 경기서 조기 우승 도전

▲NBA 스타 웨스트브룩, 중국행 아닌 새크라멘토와 계약

▲‘홀런 5방’ 토론토, 13-4로 시애틀 완파하고 ALCS 첫 승

메트로 한줄뉴스